

C2002 2형 혼합형(VUL)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2형 혼합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2형 혼합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010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0.04
운용기간	2020.10.01 ~ 2020.12.31	존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물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2형 혼합형(VUL)	자산 총액 (A)	3,547	3,743	5.52
	부채 총액 (B)	2	3	35.59
	순자산총액 (C=A-B)	3,544	3,740	5.5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1,803	1,787	-0.87
	기준가격 (E=C/D×1000)	1,965.93	2,092.36	6.43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주식부문] 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23.4% 상승했습니다. 10월 시장은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세로 하락했습니다. 11월 미 대선 잠정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제약사들의 긍정적인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 발표로 시장은 빠르게 반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2월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부양책 타결, 브렉시트 이슈 일단락 등으로 주요 불확실성들도 해소되며 시장은 전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철강금속, 전기 가스업이 시장 상위, 기타, 음식료, 통신, 서비스업이 하회했습니다. 4분기 동 펀드는 5.62% 상승하여 벤치마크 대비 0.76%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 KOSDAQ, 운송장비, 화학업종에 대해 높은 투자비중을 유지한 부분이 긍정적인 성과로 작용하였고, 종목별로는 GS건설, 기아차, 롯데케미칼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의약품, 보험, 비금속업종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과, 종목별로는 현대모비스, 와이저엔터테인먼트, 현대차 등의 종목선정이 성과에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 기간 포트폴리오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삼성SDI,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을 비중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과정에서 한화솔루션, C제일제당, LG전자 등을 비중 축소하였습니다.

[채권부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미 재정지출 확대 우려와 3분기 국내 GDP 호조, 외인 선물매도 등으로 채권시장은 분기 초부터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1)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확정에 따른 대규모 재정부양책 편성 우려 2) 양호한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시험 결과 발표에 따른 글로벌 위

험자산 선호 3) 11월 금동위에서의 성장을 전망치 상향조정 4)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제선물 매도 5)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규모(9.3조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등으로 분기 말까지 약세 흐름이 지속되며 마감하였습니다. 4분기 전 구간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됨에 따라 듀레이션 및 커브 전략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레딧이 강세를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물가채 역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섹터 전략 및 종목 전략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4분기 성과는 BM과 유사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수출/이익 반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대 밸류에이션 및 추가적 경기 모멘텀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과 한국시장 이익전망치의 빠른 상향조정세로, 한국의 글로벌 대비 주가-수익의 멀티플 기준 상대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역사적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모멘텀 경우, 기대 모멘텀 피크아웃 우려가 있으나 첫째, 백신 접종 개시라는 큰 이벤트 소멸에도, 글로벌 일 점종자수와 일 확진자수가 역전되는 구간 및 기술적으로 상반기종 북반구가 계절요인으로 완회되는 구간이 남아있고, 둘째, 서프라이즈시 피크아웃에도 신용-선진 스프레드 기준으로는 역전 초기 국면이며, 셋째, 향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본격적 재정정책 도입 과정에서 기대지수가 높게 유지되는 경로를 전망 가능한 등, 긍정적 해석 여지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연초 미 대선, 백신, 미국 부양책에서부터 브렉시트까지 주요 매크로 불확실성들이 상당분 해소된 가운데, 미중 분쟁 이슈 정도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투자 및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전술적 대응으로 연초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초효과로 가격반영이 빠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리밸런싱으로 연중 관점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권부문] 채권 시장은 공급부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감안하면 채권수익률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1월부터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대비 2021년에 늘어나는 월평균 국고채 발행금액은 약 0.16조원 내외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서울시장 보궐 선거(4/7)를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이 악화될 경우 선심성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부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메리트와 수요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1분기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 0.83% ~ 1.03%, 5년 1.15% ~ 1.45%, 10년 1.45% ~ 1.85%의 레인지 속에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당분간 듀레이션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일시적으로 레인지 상단으로 금리가 상승시 듀레이션을 소폭 늘릴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편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장단기 스프레드가 70bp 후반까지 확대가 되었으나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감안하면 1분기 중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가 우세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현재 중기물 중심인 포트폴리오를 완화하고 10년 구간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크레딧의 경우 연말 강세에 비해 연초효과가 강하지는 않겠지만 풍부한 유동성 여건 속에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추가 축소여력이 남아있는 AA-급 위주로 신용스프레드 축소를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종목선별을 통하여 크레딧 비중을 소폭 늘릴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2형 혼합형(VUL)	6.43	9.20	14.30	9.66
(비교지수 대비 성과)	(1.57)	(1.26)	(0.25)	(0.71)
비교지수(벤치마크)	4.86	7.94	14.05	8.95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형 혼합형(VUL)	9.66	13.04	10.22	19.48
(비교지수 대비 성과)	(0.71)	(-0.34)	(-0.76)	(-1.40)
비교지수(벤치마크)	8.95	13.38	10.98	20.88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3	0	94	0	0	0	0	0	0	-8	90
당기	0	-7	0	239	0	0	0	0	0	0	-7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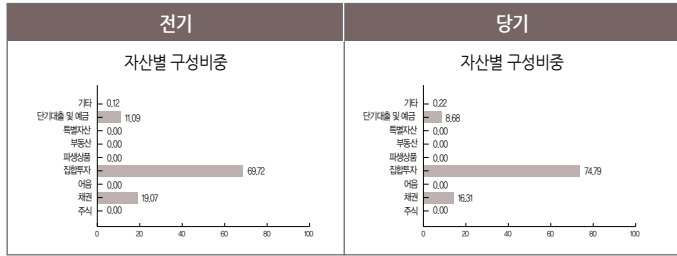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0 (0.00)	611 (16.31)	0 (0.00)	2,799 (74.7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25 (8.68)	8 (0.22)	3,743 (100.00)
합계	0	611	0	2,799	0	0	0	0	0	325	8	3,743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SMART 200TR	31.32	6	집합투자증권 KOSEF 국고채10년	4.25
2	집합투자증권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29.95	7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3.33
3	채권 국고2375-2812(18-10)	11.31	8	채권 인천도시공사175	2.75
4	집합투자증권 KODEX 국고채3년	9.27	9	채권 미래에셋캐피탈27-2	1.34
5	단기상품 한국저금중개REPO매수(20201231)	5.34	10	채권 국고2375-2303(18-1)	0.92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2375-2812(18-10)	400	423	대한민국	KRW	2018-12-10	2028-12-10		N/A	11.31
인천도시공사175	100	103	대한민국	KRW	2019-02-18	2024-02-18		AA+	2.75
미래에셋캐피탈27-2	50	50	대한민국	KRW	2019-07-29	2024-07-29		AA-	1.34
국고2375-2303(18-1)	33	34	대한민국	KRW	2018-03-10	2023-03-10		N/A	0.92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SMART 200TR	수익증권	803	1,172	대한민국	KRW	31.32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수익증권	1,127	1,121	대한민국	KRW	29.95
KODEX 국고채3년	수익증권	344	347	대한민국	KRW	9.27
KOSEF 국고채10년	수익증권	163	159	대한민국	KRW	4.25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REPO매수	KTB투자증권	2020-12-31	200	0.70		대한민국	KRW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125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1	78	2,646,562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646,562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7	78	2,646,562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646,562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	0.03	1	0.03	
판매회사	6	0.17	6	0.17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7	0.20	7	0.2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1	0.02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1	0.02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할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914	0.14	0.9314
당기	0.7913	0.1267	0.918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0	0	0	0	0.00	0.00

※ 매매회전을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20-04-01 ~ 2020-06-30	2020-07-01 ~ 2020-09-30	2020-10-01 ~ 2020-12-31
1644.17	6461.38	0.00

'2월 혼합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에서 의거하여 향후 불기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